

한 대학인의 화두와 꿈

박혜경

영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지금 대학은 세계화와 개혁의 급류 속에서 제 방향을 잡아가려는 격한 몸짓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대학에 실어 보내는 기대와 대학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대학 스스로의 깨우침은 국가가 주도하는 개혁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급박하게 시행되는 여러 조치들이 다만 옷갈아입기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대학을 포함한 우리의 제도교육이 지나치게 권력이나 정치의존적이어서, 물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권력이나 정치가 안고 있는 치명적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번 개혁 역시 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식행위는 마치 본질적이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모두 풀고 난 것처럼 회의하지 않으며, 명료하게 기능적이다. 교육제도나 교과과정, 교육내용은 철저히 사회나 권력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면서 대학은 구체적

일상도 본질을 묻는 생활도 지식언어로 만들어 내지 않은 채 단지 폐쇄적 지식언어회로 속에서 자족하며 현상적 위상을 견지해 나갈 뿐이다.

대학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복도에 침벨고 창틀에 담뱃재 비벼끄는 대학생, 학교 주변에 널려있는 유흥가와 옷가게에 마음대로 드나들기 위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몽땅 교과서에만 코박고 지냈던 대학생과 서구에서 직수입된 전문용어와 방법론을 풀어 놓거나 혹은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서 근엄하고 이지적일 수 있는 교수들이 대학에 모여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매스컴과 대중매체와 온갖 상품과 간판에 넘쳐나는 미국어와 알파벳의 홍수 속에서, 건기 시작하면서 영어학원을 드나드는 유아들과 불란서를 흉내내 만든 육아지대로 아이를 키우는 모성들 속에서, 또 서구화·왜색화된 젊은이들 유행감각 속에서, 서구열

강과 맺는 조약마다 불리하고 로열티 지불과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면서도, 왜 여전히 영어 못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온 국민이 스스로와 다음 세대를 다그쳐 대는 것일까. 규장각 도서나 해인사 대장경이나 왕조실록한 줄이라도 읽을 수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되는가. 가족이 보도록 추천할 만한 비디오 100선에는 왜 거의 모두 미국산 비디오만 들어 있는가. 오늘 듣는 라디오 음악은 왜 거의 모두 팝송이고 상송이고 클래식이며 오늘 펼친 신문 영화광고 대부분은 어째서 모험과 영웅심을 가장한 미국 폭력물뿐인가. 스포츠와 과학산업은 우리의 용어를 만들어 내지 못한 채 왜 온통 매스컴 지면을 미국어로 도배하는가. 왜 바이올린 켜고 소프라노로 노래하고 발레해서 서양에서 인정을 받아야 조국을 빛낼 수 있는가. 전통무술은 본 적이 없는 국민들이 왜 매일 야구나 축구나 하다 못해 이 좁은 땅덩이에서 자동차경주나 골프중계까지 보아야 하며, 우리 음식나 악기가 무언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그 진한 감성을 피아노에 팝송에 몽땅 바치는가. 세계화인가, 미국화인가? 정보화인가, 문화종속화인가? TV나 신문,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국인일까. 망국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의 심성을 오염시키는 매스컴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한국인일까. 대학은 이 모든 현상과 관련이 없는가.

200년 전, 150년 전 아메리카 땅은 누구 것이었을까. 백인들은 어떻게 인디언들의 광대한 북남미 땅을 얻었을까. 양보와 타협

과 신사도와 하나님의 가호로 그 거대한 땅을 탈취했을까. 유태와 애리조나 주 사막에서 경제권은 백인에게 빼앗긴 채 백인의 생활양식을 강요당하는, 이제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박제당한 인디언들의 수만 년 역사는 왜 침묵당하는가. 오늘날 중남미의 참담한 현실이 16세기 이래 본격화된 유럽인의 인디언에 대한 착취의 결과임은 왜 크게 언급되지 않는가. 왜 이 땅에서는 미국을 제국주의라 하면 빨갱이인데, 미국 내에는 스스로를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전제하는 많은 저서가 있는 것일까.

세계지도는 왜 영어·미국어·불어·스페인어로 된 수많은 지명으로 채워져 있고 어째서 하와이가 미국 땅이며 태평양 섬들이 불란서 땅이 되었는가. 왜 당연하게 서력 기원을 우리 연대로 삼는가. 백인과 미국인의 침략적 세계관과 사상을 담고 있는 지리, 역사, 과학이 왜 그대로 우리의 교과내용이 되었는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세계사, 사회 과목의 내용은 어디서 온 것이며 인류학, 심리학, 문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의학, 약학... 등 이 모든 소위 고급 학문의 내용은 누가 만들었는가. 오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그 역사 속에 만들어져 있음직한 학문의 내용은 모두 어디에 감춰져 있는 것일까. 우리의 독창적 학문 내용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지식인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천부경이나 한 단고기어나 수록된 먼 역사 속으로 맞닿아 있는 가느다란 광맥의 끈을 놓쳐버린 것일까.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법전을 다루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듯이 우리 얼의 맥

을 이룰 수 있는 이는 서양지식과 문화에 찌든 배운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편향적 종속적 교육의 틀과 물질, 영달추구에 초점 맞추어진 천민자본주의적 현대교육 내용에 오염되지 않은, 그래서 기득권 대열에 끼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가.

개혁한다고 그 많은 문서와 보고서를 갖춰내느라 대학 전체가 분주한데, 왜 여자들은 여전히 교수채용심사에서 제외되며, 특정대학 출신은 우선권을 가지며, 학회의 논문심사제는 보수적 기득권자의 권력행사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가. 연구도 강의도 거의 하지 않는 교수가 학교발전위원회에서 무슨 심의회에서 운영회에서 점잖게 발언하는 것이 논문편수나 강의계획서로 검색될 수 있는가.

교회는 거대한 예배당 짓기로, 사찰은 여백의 조형미를 깨고 전통미를 파괴하는 건축물 늘어놓기로 경쟁하는 마당에, 즉 어떤 정신성도 이제는 물질이라는 무소불위한 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한 국가도 공동체도 교육도 종교도 모두 기업정신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매스컴을 통해 부추겨지는 사회에서 가정과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기를 요구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사법·행정고시와 일류대 수석합격자들의 한결 같은 포부에도 불구하고 범망에 걸려들지 않는 기득권자들의 횡포가 더욱 치명적으로 사회를 병들게 해 왔음을 누가 모르는가. 외우기와 교과서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소위 일류대생, 고시출신, 엘리트집단이 진정 우수

하고 생산적일 수 있을까. 오히려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단순화·정형화되고 굳어진 두뇌들이 사회가 보장해 놓은 기득권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거치는 시험과 학위제도는 사회의 창조성을 마비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자들이 관리·통제하는 권력과 언어·지식행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서구모방을 통한 물질생산과 근대화 표방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은 아닌가. 스스로의 열의 뿌리와 자주적 문화창달에 패념치 않고 오도된 사회의 맹목성이 부여하는 종속적 가치관에 자동기계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순환적 논리의 합리성과 가시적 물질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서 학문이 그 소임을 찾아내 이룰 수 있을까.

지식은 명제들로 이루어진다. 주어진 기존의 명제들을 현상구도 속에서 받아들일 때 세상의 현존 질서는 명쾌하고 단순하다. 그런데 지식의 내용을 이루는 명제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 우리의 교육내용이 되기까지 이르렀을까. 이 질문은 곧 지식과 교육내용을 우리의 역사나 주체성문제와 무관하게 볼 수 없다는 인식이다. 우리의 원전은 사서삼경이었고 이제 그것이 서양원전으로 바뀌었을 뿐으로 제도권 내에서 체제로 수용하고 전수하는 교육내용은 한민족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일구어내고 이론화한 지식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식언어는 철저히 대중의 삶과 유리된 채 제도권력의 진입을 위한 가치로 중시되었기에 진정한 삶의 표출과 형상화로 연결되며 민족의 자주적 역량과 창조적 몸짓의 구현이

되지 못해 왔다. 그나마 이제 지식이 도덕이나 덕성과 관계없이 외계와 대상물에 대한 분석과 실용화를 지칭하게 되면서 지배체제와 봉건질서에 이념적 기틀을 제공하던 유교와는 또다른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소외, 제3세계인의 소외를 낳았다.

지식만능주의나 지식마저 소유할 수 있다고 보는 미국의 지적소유권 주장은 철저한 유물론과 사유재산제에 근거하고 있는 천민 자본주의적 발상이다. 인디언이 땅을, 우리네가 지식을 소유·매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대지와 인간과 정신성 사이를 꿰뚫는 가격매겨질 수 없는 가치 때문이었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지식인의 대학에 대한 의심없는 자부심, 자부심이 지나친 교만은 경제논리에 의해 틀림없이 가격매겨지는 지식을 당연시하여, 생명과 일상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헛되이 난해하고 고고하면서도 서류에 재빨리 영합하는 지식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이 다투어 내놓는 개혁안들이, 서구 혹은 미국이 지나온 노선을 그대로 따르며 그들이 제시하는 유형의 삶의 양태—과학주의, 합리만능주의, 개체주의, 물신주의—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변신시켜 담금질해야 하는 경쟁에의 노력이라면, 이런 것은 그들에게는 내재화 일상화된 삶의 패턴일 뿐이며, 더 나아가 우리 시각에서 냉철히 볼 때 인류를 위해 부정적일 뿐이다. 맹목적 진보사관을 등에 업고 자본주의 이윤추구를 포장하고 있는 과학주의와 합리주의는 경쟁과 승리, 이윤과 정복을 목표로 하는 군사대국주의, 경제대국주의에서

가 아니라면 통렬히 비판받아야 한다.

여전히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의 경제논리와 과학합리주의 구도를 그대로 채택하고 수용할 때, 문화와 지식의 종속은 필연적이다. 우리의 지식행위가 중국이나 미국 등 열강의 지식논리나 세계관을 답습, 충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표출하고 그 필요에 응하는 자생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고민을 시작할 때 대학의 개혁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지식의 이름으로 너무 오래 깊숙이 우리의 언어와 얼을 폐기해 왔고, 기어이 그 유구성에 맞닿는 끈을 놓쳐 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수입된 지식내용을 객관화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미아됨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대학은 권력과 의 공생관계가 마련해 주는 여전한 권위와 기득권 위에서 지식언어를 피상적으로 다양화하거나 제도를 합리화하는 미봉책을 개혁이라 부르기를 그쳐야 할 것이다. 개혁은 지워져버린 우리 혼의 역사를 만나고 그 속에 맞닿아있는 우리 지식언어의 실타래를 뽑아내 되짚어나와 앞으로 걸어나가려는 광대하고 본질적인 꿈에 있기 때문이다. ■

박혜경/이화여자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이래 영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역서로 『여성의 권리』, 『연출사』 등이 있고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보브아르", "사르트르 연극이론—상황연극론—", "쥬네와 사르트르의 비극적 연극"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